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연구: OECD 6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선아**

A Study on the Perspectives of Implementing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Comparison with 6 OECD Nations'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Chung, Shun Ah

본 연구는 OECD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 관점을 '충실도', '상호적응', '생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교의 내용은 각국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 문서의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적합성 검토 방법, 자체 영유아보육과정 수립의 자율성, 영유아보육과정 설계 과정, 실행자료 지원의 7가지 영역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의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상호적응'과 '생성'의 관점에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상호적응'의 관점에서 실행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충실도'의 관점에서 실행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개발될 0-5세 통합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충실도'의 관점을 벗어나 '상호적응' 혹은 '생성'의 관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관점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 주제어 :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 OECD 국가,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3-5세 누리과정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1203-0341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chung78@sm.ac.kr

I. 서론

누리과정은 생활주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할 때도 있어요. 항상 생활주제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고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16년차 병설유치원 교사)

지도서를 보게 되면... 활동 같은 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활동들이 있으니까 짜다 안 되면 지도서의 것을 가져다 쓰는....뭔가 특별할 건 없는데 그래도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 보다는 그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랬어요. (5년차 어린이집 교사)

골고루 내가 하고 있다는(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조금 더 편향된 게 있으면 다음번 계획에 참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월간 평가를 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영역별로 골고루 활동이 들어갔는지... 골고루 들어가게 하니까... (4년차 어린이집 교사)

위의 사례는 국가수준 3-5세 누리과정 실행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¹⁾.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교사에게 국가수준 3-5세 누리과정²⁾ 실행은 생활주제의 운영이거나 계획안의 활동이 국가수준 3-5세 누리과정의 내용을 균형적으로 안배하는 잣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수준 3-5세 누리과정의 실행은 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교실에 적절한 영유아보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의 생활주제를 적용·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수준 보육과정 혹은 유치원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교사 인식의 문제점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어왔다(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11; 이성희, 박은혜, 2012).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국가수준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영유아보육계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이 개발되거나 개정될 때 마다 실행 실태조사, 이해 및 수용정도, 실행 상 문제점 혹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실행의 적절성과 이의 확대가 이슈가 되었다(김은설 등, 2012; 나귀옥, 2013; 문무경, 권미경, 황미영, 2011; 이연승, 지성애, 정선아, 고영미, 2010; 이영환, 서현아, 윤정진, 2013; 태성란, 황혜정, 2013). 이의 해결책은 예외없이 교사가 현장에서 정확하고, 편리하게 국가수준 보육과정은 물론 유치원과정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사용지도서, 구체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 및 교구의 개발로 귀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물론 관련기관 및 학계에서는 다양한 교사용 자료집(교과 영역별 자료집)을 보급하여 국가수준 교육과

1) 김희진(2013)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례를 발췌하였다.

2) 본 논문에서는 현행 3-5세 누리과정이 0-2세 보육과정을 포함하게 될 경우 이를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혹은 국가수준 보육과정(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정 혹은 보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누리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교사용지침서, 수업매뉴얼, DVD, CD-ROM, 파워포인트 자료, 웹사이트 등의 개발로 더욱 강화되었다(OECD, 2012). 즉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충실한 실행’의 관점이 유독히 강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교사는 국가수준의 주어진 영유아보육과정의 사용자이자 충실한 실행자가 되어왔다. 그러나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교사의 해석과 실천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이의 실행 주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박민정, 2012; 염지숙, 2011). 또한 OECD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도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지침 혹은 비지시적인 교육과정의 제공으로 동반되는 효율성은 각국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OECD, 2012).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영유아보육의 질 제고의 차원에서 그동안 당연히 여겨졌던 충실한 실행의 관점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을 되짚어볼 필요성 역시 있다.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박민정, 2012; 박종덕, 2011; 조재식, 2002). 첫째, ‘충실도’ 관점은 보육과정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서 교사는 보육과정이 개발되어 보급되면 주어진 보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수동적 전달자’ 혹은 단순한 보육과정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세부지침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보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보육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므로 원래의 의도와 실행 간에 간극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상호 적응’ 관점에서 보육과정은 이의 의도와 계획을 중시하지만, 교사에 의해 보육과정 실행 맥락에 따라 조정된다. 셋째, 보육과정 ‘생성’의 관점에서 보육과정의 실행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계획이 아니라 보육과정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와 어린이가 자율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것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 교사는 외부에서 주어진 보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과정의 의도나 계획을 나름 이해하고 해석하며 현장의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보육과정 개발자’가 된다.

현행 3-5세 누리과정의 개발과 함께 이의 충실한 실행을 위하여 교사용 해설서, 지침서, 생활주제 운영지도서는 교사에게 제공되었고 더욱 더 실행의 ‘충실도’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보육과정 실행의 3가지 관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5개 국가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의 관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취학전 영유아의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을 통합하여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5개국의 보육과정 실행의 관점과 통합을 시행하려는 우리나라 국가수준 3-5세 누리과정의 실행 관점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될 경우 개발될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OECD 국가인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 관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3년 10월까지 각국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원문과 그와 관련된 자료, 각국의 보육과정 정책과 관련한 통합 부처의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OECD 국가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과 관련한 최근의 자료를 담고 있는 2012년 Starting Strong II, III 보고서를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박민정(2012), 박종덕(2011), 조재식(2002)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3가지 관점인 ‘충실도’, ‘상호적응’, ‘생성’의 관점을 근거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각국 영유아보육과정 원문은 문서의 ‘명칭’,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영역에서 실행의 관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2년 Starting Strong III 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는 각국의 ‘영유아보육과정 적합성 검토 방안’, ‘영유아보육과정 수립의 자율성’, ‘영유아보육과정 설계 과정’, ‘실행자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영역의 내용을 실행의 관점으로 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Starting Strong II, III 보고서에서 각국 영유아보육과정의 운영 및 실행과 관련한 주요한 분류 기준이었던 ‘교육전략’을 다시 실행의 관점으로 재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8개 영역에서 각국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 관점이 추출되었다.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설계에서 나타나는 실행의 관점은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 ‘문서의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설계과정’으로 분석되었고,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에서 나타난 실행의 관점은 ‘적합성 검토’, ‘영유아보육과정 수립의 자율성’, ‘실행자료 지원’ 3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교육전략’ 선택에서 나타난 실행의 관점이 분석되었다.

III. OECD 국가의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 비교

OECD 각국의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개발과 시행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OECD, 2012).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시설, 연령 간, 질적 수준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고, 평등한 체계를 제공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유아교육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영유아보육 분야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영유아보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의 정부는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에 합의하는 과정은 다양한 관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명시적 지침과 목적은 교사가 유아의 주요 발달과 학습영역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아가 초등교육 이후 학습에 필요한 지식, 기술, 성향(disposition)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며 학교로의 이행(transition)을 순조롭게 도와줄 수 있다. 넷째, 영유아보육과정은 다양한 시설의 질적 수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 영유아가 특수 교육을 받거나 유급되는 사례를 줄여줄 수 있다. 다섯째,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개발은 자녀가 기관에서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교직원과 부모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OECD, 2012). 각국의 통합된 영유아보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하나의 영유아보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에 관한 논의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충실한 실행을 위해 구조화를 높이려는 관점과 교실 단위에서 영유아보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1. OECD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설계에 나타난 실행 관점의 비교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설계에서 나타나는 실행의 관점은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 ‘문서의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설계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국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설계에 해당하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호주의 경우 framework(틀), 노르웨이는 framework plan, 뉴질랜드의 경우 Maori언어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Te Whāriki, 영국은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 스웨덴은 curriculum(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curriculum)이라고 사용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뉴질랜드이며, 다른 국가는 framework(틀 혹은 구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조 혹은 틀로 해석할 수 있는 framework³⁾라는 용어는 국가수준의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 내용만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보육기관이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관의 역할과 가치, 학습과 발달의 원칙, 학습영역 및 내용, 영유아의 복지,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학교교육과의 연계 사례,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우리나라 누리과정이 구성 원칙, 목표, 운영 및 편성, 내용으로 각 기관의 보육활동에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할지를 안내하는 문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국 영유아보육과정 개발의 ‘목적’ 및 ‘지도원칙’(문서의 목적)은 이 문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실행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의 문서는 개발의 가치와 철학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

3) Framework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신념, 아이디어, 규칙의 체계를 의미한다.

향점을 서술하고 있다. 호주의 framework은 “0-5세 그리고 학교로 전이하는 영유아의 학습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2009, p. 5). 또한 지침서에는 “Framework는 하나의 틀일 뿐, 계획안도, 프로그램도, 모델도, 평가 도구도, 모든 영유아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서술한 것도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2010, p. 3). 즉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 문서는 교사들이 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미래학습의 성공에 필요한 기초를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명시하여 문서의 충실한 이행과 거리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OECD, 2012, p. 89). 뉴질랜드의 Te Whariki는 “공인받은 유아교육서비스 기관이 일관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기초이며, 모든 공인된 기관의 유아에게 실행되는 교육과정” 이라고 밝히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1996, p10). 그러나 여기에서 역시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지시적, 비지시적 경험, 활동, 이벤트를 총칭” 하며(p. 10), 지시적이고 구조화된 교육과정의 의미와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Te Whariki는 뉴질랜드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상징적 명칭이어서 각 기관의 철학, 구조- 환경에 따라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자율적 생성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preschool curriculum 과 preschool class curriculum(유아학교와 취학직전 교육과정)은 “민주주의는 유아학교의 기초이며, 교육법에 따라 유아학교의 교육은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Skolverket, 2011, p. 4)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의 목적은 유아학교의 기본 가치를 전달하는데 그칠 뿐 각 기관에서 이를 어떻게 충실하게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노르웨이의 framework plan에는 “유치원의 가치, 내용, 과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모든 유치원은 유치원법에 제시된 가치에 따라 모든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p. 4)고 밝히고 있으나, 문서의 충실한 적용은 유치원법의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Statutory framework은 학교 혹은 비학교, 독립학교 그리고 등록된 모든 유아기관의 제공자가 지켜야 할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2, p. 1). 모든 영유아가 최고의 생애 출발을 가능한 보장하고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역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충실한 현장 적용을 위하여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누리과정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 4,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공통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제정 배경을 밝히고 구성의 방향으로 바른 인성 함양,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전인발달을 도모,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함양, 연령별 구성, 5개 영역의 구성, 초등학교와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명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다른 국가의 영유아보육과정 문서와 달리 누리과정은 각 기관의 역할이나 책임보다는 누리과정 실행의 목적, 목표, 실행을 위한 편성과 운영을 초점으로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현장에의 충실한 적용에 관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비교 결과, 다른 나라의 영유아보육과정의 문서는 이를 시행하게 될 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적시

하여 기관의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누리과정 문서는 누리과정 실행의 목적과 목표, 이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데 더 초점을 두고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국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은 문서의 목적과 역할을 밝힘으로써 현장에의 충실한 실행을 도와주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반면, 우리나라 누리과정은 문서의 목적보다는 내용 자체이자 이의 적용이 목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 1〉 OECD 국가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명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한국
명칭	Early Learning Framework (0-5세)	Te Whariki (출생에서 초등교육전)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⁴⁾ (1-5세)	Framework plan for the content and tasks of kindergartens	Statutory Framework for Years Foundation Stage(EYFS)	표준보육과정 (0-2세) 3-5세 누리과정

각국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학습 및 발달목표’에서 설계에 나타난 실행관점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3-5세 누리과정은 물론 표준보육과정 문서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내용을 안내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문서의 이러한 특징은 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가르칠 지가 실행의 의미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문서를 살펴보면 영유아가 무엇을 학습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기를 원하는지를 적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그리고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영유아보육의 목표를 결정하는 영역 및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언어와 의사소통, 수학, 과학 등과 같은 학습영역을 공통적으로 선정하는 것에서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OECD, 2012). 그러나 누리과정과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 영유아보육과정의 경우 유아들의 정체성, 사회에의 기여할 수 있도록 발달하는 것을 강조하며, 스웨덴의 경우 민주적 가치, 다양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윤리, 종교 영역이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학습 영역에서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일반 영역과 구체 영역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누리과정과 유사하다. 이렇듯 OECD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설계에 해당하는 ‘학습 및 발달목표’는 각국의 어린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지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실행 관점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각국의 영유아보육과정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이의 실행 관점의 차이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4) 스웨덴의 취학전 6세를 위한 취학전 교실(preschool class)의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교육과정(Curriculum for the compulsory school, preschool class, and the recreation centre, 2011)편에 포함되어 있다.

5) 구체 영역은 일반 영역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내용이어야 함을 적시하여, 7개 학습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두고 이의 목적, 목표 등을 공유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을 강조한다(OECD, 2012). OECD 국가의 이러한 설계 과정은 영유아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관계자의 이해를 도와 실행 토양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 등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와 교실에서 이의 자율적 실행이 가능해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누리과정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OECD, 2012), 우리의 절차는 단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을 구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시간에 걸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공유하여 이의 충실한 실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조성하게 된다. 설계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것 역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에의 관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각국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학습 및 발달 목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한국
학 습 및 발 달 목 표	강한 정체성, 세계와 연결되고 세계에 기여, 복지에 대한 강한 의식, 자신감있고 적극적인 학습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자	유능하고 신념이 있는 학습자, 의사소통자, 몸과 마음, 정신이 건강하고, 소속감이 강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는데 있음	개방, 존경, 연대감과 책임감 발달,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타인을 도우려는 능력, 형평성에 대한 이해, 삶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이해 능력의 발달	7개 학습 영역 -의사소통, 언어, 글 -신체, 동작, 건강 -예술, 문화, 창의성 -자연, 환경, 기술 -윤리, 종교, 철학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수, 공간, 도형	3개 일반영역: 의사소통과 언어, 신체발달, 개인 및 사회정서발달 4개 구체 영역: 문해, 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예술과 디자인	5개 생활영역 -신체운동 영역 -의사소통 -사회생활 -예술경험 -자연탐구

2. OECD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 관련 영역에서 실행 관점 비교

OECD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과 관련된 영역(‘영유아보육과정의 적합성 검토’, ‘영유아보육과정 수립 자율성’, ‘실행 자료의 지원’)에서 나타난 실행의 관점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개정을 거친 국가(스웨덴, 영국, 한국)에서

이루어진 영유아보육과정 ‘적합성 검토’의 방식은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진행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기존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두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내용⁶⁾에 포함되어 있었던 문해, 과학, 수학적 기술과 능력의 발달을 교사의 책임영역으로 재강조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언어와 의사소통능력, 수학적 발달, 과학과 기술에의 흥미 발달을 자극하고 도전하도록” (Skolverket, 2011, p. 11)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학습 영역의 발달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학습 영역은 확대하였으나 교사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고 여전히 자율적인 영유아보육과정의 ‘생성’ 관점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적합성 검토는 최근의 개정작업에서 실행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기존의 영유아보육과정이 “지나치게 지시적이어서 혁신의 여지가 충분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체제를 간략하게 하여 관료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69개의 학습목표를 17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주요 학습영역⁷⁾을 3개(의사소통과 언어, 신체, 인지사회정서 발달)로 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국가 수준의 규제를 약화하여 불필요한 문서작업을 축소하여 영유아전문가들이 영유아를 보호하고 발달을 도모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적합성은 이의 실행이 상황에 맞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토되었고, 이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상호적응’적 실행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누리과정의 경우 3-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게 된 것을 적합성 향상의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다(OECD, 2012).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만 적합성이 검토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의 적용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국가와 적합성 검토의 수준과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의 영유아보육과정의 적합성 검토는 이를 현장에 실행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충실도’ 실행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보육과정 ‘수립 자율성’ 영역은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국가수준의 문서를 기초로 지역

6) 스웨덴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발달과 학습 내용은 24개 항목이며 항목을 학습영역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정체성, 호기심, 자율성, 참여, 집단과의 관계 능력, 운동 및 신체, 문해 및 의사소통, 예술 표현능력, 수학, 과학, 기술, 도구 사용능력, 모국어사용등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Skolverket, 2011). 그리고 지침으로 교사의 책임 영역을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11개 항목(기회제공, 즐거움, 도전적인 지원, 사회적발달, 소속감, 언어와 의사소통, 수학, 과학과 기술, 운동, 보호와 균형 잡힌 일과)에서 교사의 책임을 나열한다. 예) “교사는 따뜻한 보호와, 균형 잡힌 일과 리듬을 제공한다.”(p. 11)

7) 3개의 주요 영역 외에 4개의 구체 영역(문해, 수학, 세계에 대한 이해, 표현 예술과 디자인)도 포함하고 있으나 3개 주요 영역 내에서 4개 영역의 발달을 의미하여 학습 영역을 축소함.

의 여건에 맞게 그리고 “(교사)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역시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을 반영하여 지역의 조율을 거쳐 각 기관의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교육방법을 자유롭게 발전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OECD, 2012). 우리나라 역시 3-5세 누리과정 편성·운영방침에 의하면 단위 기관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단위 기관은 “자체적인 환경과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OECD, 2012, p. 9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실행에 있어 기관의 맥락에 적응하는 ‘상호적응’과 자율적 ‘생성’의 관점을 모두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실행자료 지원은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전략과 국가가 정한 방식으로 따르게 하여 실행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뚜렷하게 대별된다. 호주의 경우 우수 실천 사례를 제시하는 점이 눈에 띄며 교사용 지침서에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에 대한 토론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2010). 뉴질랜드 역시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고 연령에 적합한 실제 및 활동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위한 질문을 제시하여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돕고 있다(OECD, 2012). 노르웨이 역시 지침서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은 유아를 위한 교육법, 다문화, 유아의 주체성과 참여, 언어와 언어적 자극, 실외 활동, 성평등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에 관한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와 논의가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스웨덴은 일반적 지침만을 제시하는 반면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전적으로 교사에게 실행의 자유와 책임을 주고 있다(Skolverket, 2011). 영국 역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침서에는 학습과 발달 영역에 대한 정보, 교사를 위한 조언 등을 학습과 발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Foundation Years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물론 각 기관별 좋은 사례는 물론 연구자료를 게시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접근법을 시행하는 기관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 기관의 교사들이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성찰을 돕는 일반적인 지침이나 좋은 사례를 제공하기 보다는 실제 교실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자료집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는 누리과정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수준 누리과정의 충실한 실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있다. 실행 자료의 지원에서 특히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의 관점은 <표 3>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실행하는 기관과 교사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조정하는 ‘상호적응’과 교사의 자율적인 해석과 실행을 허용하는 ‘생성’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누리과정은 여전히 ‘충실도’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국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 비교

	명칭	문서의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적합성 검토 방법	자율적 수립	실행자료 지원
호주	b, c	b, c	b, c	b, c	b, c	b, c
뉴질랜드	b, c	b, c	b, c	b, c	b, c	b, c
스웨덴	b, c	c	c	c	c	c
노르웨이	b, c	b, c	b, c	b, c	b, c	b, c
영국	b, c	b, c	b, c	b, c	b, c	b, c
한국	a	a, b	a, b	a, b	a, b	a

a. 충실도 b. 상호적응 c. 생성

3.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교육전략 선택에서 나타난 실행의 관점 비교

각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전략’ 혹은 ‘접근 방식’은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주요한 잣대이다. OECD Starting Strong II와 III 보고서는 각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제 접근 방식을 학문적 모델과 포괄적(혹은 총체적)모델로 대별하고 있다. 학문적 모델은 학교 준비를 위해 인지적 목표를 강조하는 교사주도적 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반면, 포괄적(혹은 총체적) 모델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아주도의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OECD, 2006; 2012). Starting Strong II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을 전통적(traditional) 혹은 학교준비도 전통과 사회주의 교육(social pedagogy) 전통으로 분류한다. 전통적 혹은 학교준비도 전통은 “국가수준에서 목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놓고, 이를 개별 교사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정확하고 ‘충실한’ 적용이 강조되므로 교사가 주도하는 주제별 학습이 주요한 교육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OECD, 2006, p. 126). 반면 사회주의 교육 전통에서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은 폭넓은 지침을 제공하므로 세분화된 시행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기관에 위임하여 교사가 교육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호적응’ 혹은 ‘생성’의 관점이 강조되어, 유아주도와 유아간 상호작용이 중심인 프로젝트가 주요한 교육적 전략이 된다(OECD, 2006). 이러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육전략의 차이는 실행 관점의 차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교육전략이자 접근 유형에서 나타나는 실행의 관점을 관련지어 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교사주도의 교육전략을 선호하는 학문적 접근은 보육과정을

충실히 전달하거나, 보육과정의 당초 의도나 계획을 준수하며 교실의 맥락에 맞도록 조정과 조율을 거치도록 하는 점에서 ‘충실도’와 ‘상호 적응’ 실행 관점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에 “EYFS는 영유아의 ‘학교 준비’를 보장하고 학교와 삶 전반에 걸쳐 훌륭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한다(p. 2).”고 적시하여 학교준비의 학문적 접근의 전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영유아의 가르침과 학습은 영유아의 학습방식인 “놀이와 탐구, 주도적 학습, 창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를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계획하도록 하여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상호적응’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세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단위 기관이 영유아보육과정의 상호적응의 관점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상호 적응’의 관점이 있으나, 교사용 지침서는 국가수준 누리과정의 충실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 2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영국은 우리나라 교사용 지침서와 같은 실제 교실 활동을 제안하지는 않으나 학교준비전통 접근을 따르고 있어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현장의 맥락에 ‘상호적응’하거나 자율적으로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아주도의 프로젝트 혹은 놀이 중심의 교육전략을 선호하는 포괄적 접근은 교사가 교수맥락에서 의도나 계획을 존중하며 교실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이나 조율이 일어나도록 하는 ‘상호 적응’ 관점과 교사와 학생이 보육과정의 의미를 생성하며 새롭게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생성’의 실행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모든 영유아는 몰입할 수 있고, 삶의 성공을 위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2009, p. 7).”고 적시하고 있어 총체적 접근(사회주의 교육 접근)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학습은 “소속, 존재, 되어감”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립된 교육적 접근의 원칙과 실제 지침 내용이 일반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교사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상호적응’과 ‘생성’의 관점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존중하고, 상호호혜적 관계, 파트너십, 높은 기대와 형평성”이라는 원칙과, “몸, 마음, 정신이 연계되는 홀리스틱 접근, 영유아에게 반응적일 것, 놀이를 통한 학습 계획과 실행” 등의 실제 지침만이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생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Te Whariki는 다양한 문화, 구조, 조직, 환경, 철학, 자원, 지역사회의 참여방식, 연령대가 다른 기관(프로그램)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충실한 적용’보다는 자율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유아학교가 “평생 학습의 기초”라고 명시하며 총체적 접근으로 이를 실행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은 “탐색, 호기심, 학습에의 동기가 모든 활동의 기초” (Skolverket, 2011, p. 9)가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여 유아주도의, 유아간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총체적 접근의 채택으로 ‘생성’의 관점에서 영유아보육과정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보호, 놀이, 학습이 통합된 접근”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p. 12)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을 강조하며, “놀이는 영유아의 안녕, 자기표현, 상호작용의 핵심이며, 놀이하면서 균형적인 발달”(p. 18)이 이루어지므로 유아 주도의 놀이를 주요한 교육전략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르웨이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총체적 접근으로 이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와 영유아가 함께 ‘생성’하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교육 전략은 곧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 관점과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접근 유형에 따른 실행 관점

	학문적 접근 (학교준비 접근)	총체적 접근 (사회주의 교육 접근)
호주		b, c
뉴질랜드		
스웨덴		c
노르웨이		b, c
영국	a, b	
한국	a, b	

a. 충실도 b. 상호작용 c. 생성

IV. 0 - 만 5세 ‘영유아보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안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설계와 실행은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적용할 것이냐의 ‘충실도’ 관점과 영유아보육과정의 의도와 계획을 중시하지만, 교사에 의해 보육과정 실행 맥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상호 적응’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과정의 실행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와 영유아가 자율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생성’ 관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실행관점은 외부에서 주어진 보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교사와 보육과정의 의도나 계획을 나름 이해하고 해석하며 현장의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보육과정 개발자’로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을 기준으로 OECD 6개국을 국가별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 문서의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적합성 검토 방법, 자체 영유아보육과정 수립의 자율성, 영유아보육과정 설계 과정, 실행자료 지원, 교육 전략의 8가지 영역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3-5세 누리과정을 제외한 5개 국가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충실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사가 실행 맥락에 따라 보육과정을 조정하는 ‘상호 적응’ 관점과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와 영유아가 함께 만들어가

는 ‘생성’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보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에서 최선의 영유아보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원칙을 제안하지만, 이를 제안하는 설계의 과정에서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영유아기관은 물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영유아보육의 고유성인 영유아의 자발적 놀이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주도의 학습 방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각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국가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게 하기 보다는 각 기관 혹은 교사가 자신이 처한 맥락에서 그리고 영유아의 참여를 인정하면서 영유아보육과정을 ‘만들어가고’ 혹은 ‘생성하는’ 자율성을 허용하는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충실한 실행을 위해 교사의 유아평가를 강화하여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교사의 불필요한 문서작업이 수반되어, 이를 위한 부수자료가 증가하여 관료주의가 부가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새로운 영유아보육과정이 시행되었다.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충실한 실행은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사와 유아가 상호작용하며, 생성하는 영유아보육과정의 가치 즉 유아교육의 고유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져 이를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충실한 실행보다는 교실에서 교사와 영유아가 교육과정을 재창조하는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 영유아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박민정, 2012; 엄지숙, 20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2013)에는 누리과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및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의 충실한 이해와 실행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자료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교사가 활동을 전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p. 8).”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누리과정의 적용이 국가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간 혹은 상대적인 교육적 결핍이 있는 영유아에게 균형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처치로 여기고, 국가가 준 누리과정을 전수하는 전달자의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특수성, 고유성은 점차 사라지고 누리과정의 실행자료인 지도서의 적용만이 남아 교사는 더욱 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사용자로 전락하고 있다.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은 지역과 기관의 실정, 교육 여건에 맞게 교육과 보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여 각 기관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허용하던 것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과정으로서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을 약화시켜 영유아보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Aldrich(후쿠타, 2010; 윤은주, 이진희, 2011에서 재인용)은 “국가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적극적이기보다는 퇴행적인 것이며, 변화를 가장하여 과거를 온존시키려는 시도이다.” 라는 일침을 놓았고 이 시점에서 이의 함의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이다.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 경우 0-5세를 위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이의 설계와 실행의 관점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보육과정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의 의견 수렴과 이들 간의 민주적인 의견 개선의 과정이 필요하다. OECD의 많은 국가는 국가 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다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와 토론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리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참여자의 수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였으나, 다른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나 토론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자의 의견 표현이 자유로운 민주적인 논의 및 토론 절차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문서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에는 성격, 목적, 목표, 내용을 선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될지를 합의하고 이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개발의 단계에서 영유아에게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발달, 학습,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지침이라는 문서의 목적이 적시되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과정의 성격 즉 문서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무엇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누가 이 문서를 사용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의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충실도’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영유아보육과정의 전달이 아닌 교실에서 교사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보육과정의 실천을 강조하는 ‘상호적응’과 ‘생성’의 관점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는 현행의 지도서를 대폭 축소하여 교사의 상황에 맞도록 보육과정을 생성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외부에서 주어진 보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지도서의 실행)이 아니라 보육과정의 의도나 계획을 나름 이해하고 해석하며 현장의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보육과정 개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는 실천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이게 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넷째, 국가 수준의 영유아보육과정은 다양한 영유아기관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각 기관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과정은 국가가 제시하는 최소의 기준이므로 이를 각 기관의 철학,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모든 영유아기관에서 동일한 보육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므로 각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반영하는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다양성은 존중될 것이며 다양함에서 영유아보육의 발전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접근 방식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영유아보육과정의 성격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영유아보육이 영유아의 학습 준비

를 강조하는 학문적 접근의 성격을 담을 것인지, 혹은 상호작용을 통한 영유아의 자율적 놀이와 자발적 학습을 강조하는 포괄적 접근의 성격을 담을 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물론 이 논쟁은 우리나라 영유아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 것이자 영유아보육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 관점을 세우는 것으로 연결된다.

*교육과정은 정보, 주제, 교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은 어떤 지식과 경험
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다. 사람과 상황
에 따라 이 문제는 독특한 색조와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Ayers, 2010).*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김은설, 유해미, 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2011).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의 조직 체계와 운영 전략에 관한 비판적 검토: 유치원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교육과정연구**, 29(2), 69-98.
- 김희진(2013). 유아교사의 만3-5세 누리과정 적용에 대한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나귀옥(2013).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본 누리과정의 방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425-447.
- 문무경, 권미경, 황미영(201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박민정(2012). 교육과정 실행경험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내러티브 분석. **교육과정연구**, 30(3), 247-270.
- 박종덕(2011). 교사의 해석적 실천에 기초한 교육과정 실행 방안: 내러티브적 관점. **교육과정연구**, 29(4), 113-135.
- 엄지숙(2011).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학논집**, 15(6), 295-310.
- 윤은주, 이진희(2011). 위에서 아래로의 유아교육 질 향상에 대한 우려: 영국유아교육개혁의 교훈.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293-311.
- 이성희, 박은혜(2012). 유치원 교사의 교육과정 계획·실행·평가에 나타난 실천적 지식 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지**, 17(4), 319-353.
- 이연승, 지성애, 정선아, 고영미(2010). 유치원 교육과정 실행 평가 연구. **유아교육연구**, 30(3), 309-335.
- 이영환, 서현아, 윤정진 (2013). 국가수준 보육과정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09-342.

조재식(2002). 교육과정 실행과 교사의 일: 현상학적 접근. *교육과정연구*, 20(1), 229-252.

태성란, 황혜정(2013). 유아교사의 5세 누리과정 실행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253-27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2009). *Belonging, Being &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Forme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2010). *Educators: Belonging, being, and becoming: Educators' guide to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Forme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yers, W. (2012). To Teach : The journey of a teacher, **가르친다는 것**(홍한별 옮김). 서울 : 양철북 (원판 2010).

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UK : Department fo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96). *Te Whāriki*. New Zealand: Learning Media Limited.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Framework Plan for the Content and Tasks of Kindergarten*. Norway :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II.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OECD (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 : 덕성여자대학교.

Skolverket (2011) *Curriculum for compulsory school, preschool class, and the recreation centre*. Stockholm : Skolverket.

Skolverket (2011).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Lpfö 98 Revised 2010. 출력일 2013년 10월 1일, <http://www.skolverket.se/publikationer?id=1068>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6 OECD countries' (Australia, New Zealand, Sweden, Norway, England, South Korea) national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its implementation. Its design and development always focus on how the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will be applied in the early childhood settings in a correct and faithful way. As a result, teachers are considered the user or deliverer of the national curriculum rather than the one who interprets it and construct their own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ir students. Five OECD countries which have achieved an integrated system between early education and care systems, take the constructive view of designing and applying the national curriculum. Accordingly, a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within an integrated system should be developed in Korea, in order to accept the constructive view of curriculu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Key Words:*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curriculum, OECD nations, Australia, New Zealand, Sweden, Norway, England, 3-5 Nuri Curriculum

논 문 투 고	2013. 12. 15.
수정원고접수	2014. 02. 03.
최종게재결정	2014. 02. 15.